

의안번호	제317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12 월 1 일 (제 344 회)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건설소방위원장
제안연월일	2015년 12월 1일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17
----------	-----

제안연월일 : 2015. 12. 1.

제안자 : 건설소방위원장

□ 주 문

- 지난 11월 19일(목) 국토교통부는 세종-서울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에 반영된 사업예산이 조속히 통과되어, 2016년도에 반드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안이유

- 세종-서울 고속도로 신설로 인해 지역 발전의 축이 변화되어 충북에 경제·사회적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됨.
- 충북은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현재까지 남이~호법구간 4개 시군에 위치한 입주기업은 6,737개 업체이며, 이 중 유통물류업체가 101개로 기업물류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중부고속도로의 하루 교통량은 6만여 대로 7년 전보다 최대 24.8%까지 증가하는 등 주변 여건이 변화되어 중부고속도로의 확장은 불가피한 상황임
- 서울-세종 고속도로 착공과 더불어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회 명의로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함.

- 보내는 곳: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촉구 건의 의 안

지난 11월 19일(목) 국토교통부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하고 행정수도인 세종시와 수도권을 하나로 묶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총연장 129km(6차로), 총사업비 6조7천억 원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신설로 인한 경제적 유발효과로 일자리 6만 6천개와 11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는데 충청도민들은 지역 발전의 축이 변화되어 충북에 경제·사회적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에서는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현재까지 남이~호법구간 충북 4개 시군에 위치한 입주기업은 6,737개 업체이며, 이 중 유통물류 업체가 101개로 기업물류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의 하루 교통량은 6만여 대로 7년 전보다 최대 24.8% 까지 증가하는 등 주변 여건이 변화되어 중부고속도로의 확장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민자사업을 통한 재정부담 최소화와 경부·중부고속도로 교통혼잡 해소라는 명분으로 약 1조원이 투입되는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의 경제성을 낮추려는 의도로 비추어져 충청도민들의 민심이 동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중부고속도로 혼잡구간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확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착공과 더불어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 도민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해 나아갈 것을 밝히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촉구 하고 요청합니다.

첫째, 정부가 발표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내년도에 반드시 착공 하여 주실 것!

둘째, 정부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국회에서 원안 대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실 것!

셋째, 당초 국가계획에서 제외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